

질문에 추후 서면보고하기로 하고 폐회하였다.
(관련기사 「기록보고」 참조)

직업병환자 8백28명 신고

노동부가 직업병환자 일제신고기간으로 정한 지난 9월1일부터 30일사이에 신고한 근로자는 총 8백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월초 노동부가 최종집계한 전국직업병신고현황에 따르면 전·현직자의 수가 같았고 신고지별로는 서울, 직업병 종류로는 진폐, 업종별로는 광업이 제일 많았으며 노동부는 이들 신고근로자에 대해 직업병여부를 심사, 산재요양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노동부는 일제신고기간이 끝난 후에도 전국41개 지방노동관서에 직업병상담실을 계속 운영하여 근로자의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증세가 불분명한 근로자는 국비로 특별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민간명예 환경감사원제도」 확대

환경청(청장·이상배)은 지난 9월9일 민간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국소비자보호단체, 한국인권옹호연맹, 환경보전협회 등 각종 사회단체회원을 적극 위촉하고 30~120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감시원수를 2백~3백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청은 환경지청외에 시·도 및 시·군·구에 환경오염 신고접수 처리부를 비치, 신고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환경청은 이 제도로 그동안의 민간환경감시원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주민과 각계 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전국민 환경보전운동의 핵심주체가 될 수 있게 하고자 명예환경감시원 수를 확대하였으며, 환경지청과 각 시군·구간의 긴밀한 협조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알렸다.

국정감사



환경청이 지난 10월11일, 12일 이틀간 '80년 개청 이래 첫 국정감사를 받았다.

국회보사분과위원회(위원장·신상우)는 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환경청의 부승격과 기술직공채, 폐기물적정처리, 원자력발전소 중수누출, 자원재생공사, 환경연구원, 관리공단 등 전반적인 환경현안과 관련기관들에 대해 감사하였다.

하오 12시까지 진행된 감사는 일부 보사위원들의

서울 일부지역 대기오염 심각

환경청(청장·이상배)이 지난 10월4일 국정감사자료로 국회에 제출한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분석, 오염물 기준지수(PSI)로 환산하여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일부지역의 대기오염은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심각하고 그 주요인은 아황산가스와 먼지의 복합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환경보호청이 76년 공식 채택한 PSI지수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해한 대기오염도를 나타낸 곳은 면목동, 길음동, 마포동 등이며, 연중 지수 1백을 넘지않는 양호한 곳은 신림동, 대치동, 잠실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쓰레기 매립지 건의

인천시는 지난달 환경청이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 매립지로 확보해 놓은 김포지구 매립지중 인천시 서구 경서동 폐염전 부근(1백만평)을 인천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청에 건의하였던바 환경청으로부터 빠른 시일내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인천시는 현재 서구매립지를 사용중인데 이곳은 내년 4월이면 매립이 불가능해지므로 매립예정지가 인천시의 소유가 될 경우 앞으로 약40년동안은 인천시의 쓰레기 매립이 가능해진다.

한국자원재생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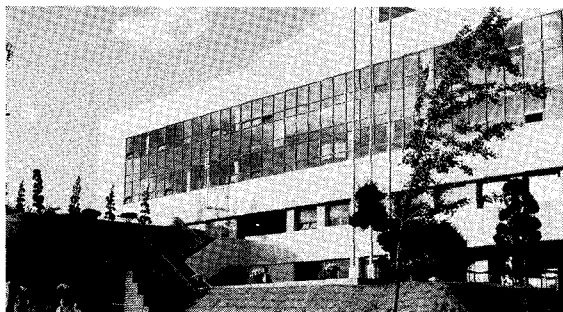
폐기물 재활용 세미나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이충식)에서는 지난 10월28일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에 대한 관심 고취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생및 재활용 분야에 기여하고자 폐기물 재활용 세미나를 국립환경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관계 전문가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권숙표교수(연세대학교)의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현황과 대책방향」의 특별강연 이후 주제발표가 있었다.

원주환경지청

새청사 준공



원주환경지청이 지난 9월15일 경기, 강원, 충북의 환경오염을 지도·관장할 신축 청사준공식을 가졌다.

원주환경지청은 '86년 12월 개청후 청사건물이 없어 그동안 원주시 원성군 농촌지도서건물 2층을 빌어 사용하던 중 이번엔 원주시 명륜동에 대지 1천4백39평, 연건평 6백14평의 지상4층 건물을 마련하게 되어 지난해 11월 착공, 15일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한수생 환경청장을 비롯 정국현 지청장, 각급 기관장, 단체장, 지역인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소/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242-2

전화/(0371)44-3305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한·일 환경 심포지움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회장·차철환)에서는 환경문제에 관한 한·일간의 관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호협력에 의한 지역환경의 개선」이란 주제로 11월22일부터 24일까지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와 일본환경협회 주최로 <제1회 한·일 환경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대기보전학회

손동헌박사 국제심포지움 참석

한국대기보전학회(회장·차철환)의 손동헌이사(중앙대 약학대학교수)는 중국북경에서 개최되는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Life Element and Health"(11월1일~11월5일)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난 10월26일 출국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에서 손동헌이사는 「대기중의 수은」에 대해서 발표하였으며 11월16일 귀국할 예정이다.

특별초청강연회 개최

한국수질보전학회(회장·권숙표)는 지난 11월4일 국립환경연구원 대강당에서 〈특별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초청강연회에서는 須藤隆一박사(일본국립공해연구소)의 「생물처리 기술의 과제와 전망」 및 中澤貴生박사(도쿄로사와시 계장)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등 7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88 추계이사회 개최

대한환경공학회(회장·신용배)는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새로이 신임이사를 선출하고 지난 10월20일 '88 추계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이사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회원 승인건과 회무보고, '88 추계 학회준비, 학회 발전방안, '89 춘계 학회 장소건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아울러 신용배회장의 신임인사가 있었다.

추계 학술연구발표회

대한환경공학회(회장·신용배)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지난 11월4일, 5일 양일간 추계 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회에는 이찬원교수(경남대)와 신현국환경청사무관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이후 임시총회도 가졌다.

환경기술개발 심포지움

동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소장·김수생)에서는 지

난 11월3일, 4일 양일간 동아대학교 주최로〈제6회 환경기술개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한국산업협동재단과 KBS(한국방송공사) 후원으로 열린 이번 국제심포지움에서는 김수생교수(동아대학교)의 「Problem Description of Drinking Water Quality Control and Sludge Treatment, Disposal in Korea」란 특별강연과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환경보전 합창대회

환경보전 시범학교인 용현여자중학교(교장·조대신)에서는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된지 2주년을 마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27개 학급 1천5백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각학년 각학급별로 작사, 작곡하여 교내 3층 강당에서 「환경보전 합창대회」를 열었다.

용현여자중학교외에도 환경청지정 환경보전 시범학교는 전국에 7개교가 있으며 이들 시범학교의 의의는 「환경관련 교육자료개발」에 있다.

제호변경

국내최초의 환경전문지를 발행하고 있는 생활환경신문사에서는 지난 8월15일자 지령 제98호부터 제호를 「생활환경신문」에서 「한국환경신문」로 변경하여 발행하고 있다.

주 소/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0-9
대표전화/701-2507

사옥이전

산업환경신문사는 지난 10월9일 사세를 확장하여 성동구 구의동의 새 사옥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독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주소/서울 성동구 구의동 593-8
전화/453-4959, 3260, 8792

환경라이온스클럽

환경특별강연



환경라이온스클럽에서는 지난 10월20일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10월 정기월례회를 갖고 환경분야의 원로이신 권숙표박사님을 초빙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전망」이란 주제의 특별강연을 경청하였다.

본클럽회원은 주로 환경관련업체장들로서 40대를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사업계획으로 환경보전및 사회봉사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호마상사(주)

사무실이전

활성오니처리 미생물제와 소독제(하이라이트크린), 정수기 등을 취급하고 있는 호마상사(주)(대표·나승진)에서는 사세를 확장하고 지난 10월22일 기존 사무실 옆의 진용빌딩으로 이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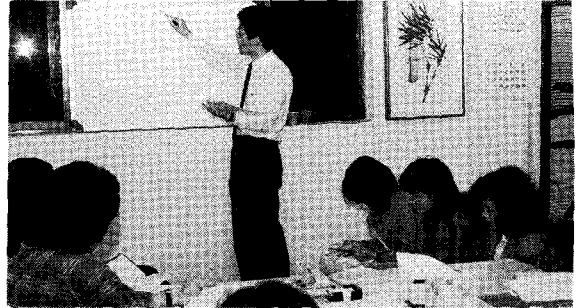
주소/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80-29호.

(진용빌딩3층)

전화/878-9878, 877-0003, 885-5533(전과동일)

연합회

활성오니 기술강좌



본연합회(회장·이용운)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활성오니처리법에 관한 기술강좌」가 지난 10월17일부터 일주일간 매일 오후7시~9시까지 본연합회 사무실에서 있었다.

수강인원은 14명으로 강사는 현장경험이 많은 동양맥주(주) 이용재 환경관리인과 대양바이오케미칼의 서정원대표가 수고해 주었다.

연합회는 앞으로도 계속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

환경오염방지시설 견학

본연합회 인천협의회(회장·김봉석)는 지난 10월26일 식품·섬유분과에서 45명이 참가하여 경기도 이천의 해태음료(주)와 (주)진로 공장 및 환경관리시설을 견학하였다.

11월 2일에는 40여명의 회원이 용인 소재의 태평양화학(주) 수원공장을 견학하고 자사의 처리 시설 및 방법 등과 비교하면서 상호 의견을 나누어 현장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충청도협의회

지청과의 간담회